

23.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

신앙고백

찬 송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시편 23편 1-6절

말씀묵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 노래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삭막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는 큰 감동과 평안을 선사합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 풍성함을 주십니다(1-3).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과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양들은 필요한 양식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능한 목자는 양들의 면면을 다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다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와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2. 안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4).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에게 항상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피 주시기 때문입니다.

3. 영원까지 인도해 주십니다(5-6).

비록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 주신 성대한 만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내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로 인정하며 세워 주십니다.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인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맺는말

사람들은 모두 힘겨운 일을 겪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곧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적용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격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세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성령강림주일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 정기제직회

오늘 2부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3. 임마누엘찬양대 모임 안내

오늘 제직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 대장-박심원		▣ 총무-이미숙	
소프라노	김재정 정순진 안혜자 전옥자 이해영 이경숙 박은경	알 토	김영주 윤관순 정경혜 이가영 우희연
	신순화 박지선 김영선 이복덕 하연주		테 너 박심원 윤종찬 신종현 이용배
베이스	유성복 김성호 강호성		

4. 교회환경미화

남·여신도회에서 교회 화단정리와 식당·주방정소로 섬겨주셨습니다.

5.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7. 임명

박경미선생님께서 6월부터 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로 임명되었습니다.

♣ 교우소식

[부친상] - 송애련권사님 부친(故 송정희장로) 별세.
지난 5월 30일(월)

[헌물] - 송애련권사·최충균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헌물] - 박상민권사님께서 강단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목사 : 조 항 철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지 휘 자 : 박경미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영

김성혜 이하림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둔전교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조항철 목사

※ 표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다같이
43장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다같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교독문	다같이
135.성령강림(1)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다같이
184장	
1부: 박상민 권사	
기도	
2부: 안순조 안수집사	

성경봉독	인도자
사도행전 2장 1~13절 (신약 188면)	
특송	영상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박경미선생님
말씀	조항철 목사
『성령 충만한 사람』	

금주의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월 봉사위원

6

		6월 5일	6월 12일	6월 19일	6월 26일
예배 기도	1부	박상민	박영원	나자금	박영애
	2부	안순조	정지영	윤종찬	이미숙
	3부				
헌금위원		1부 : 안상문		2부 : 함근실	

찬양	그 사랑 얼마나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191장	다같이
※축도		조항철 목사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 오후 9시

말씀 : 천광우 목사

말씀 : 조항철 목사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30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율	정진영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자율

【사도행전 2장 1-13절】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11 그레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나 하며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배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2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종성소산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둔전교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 방법

1. 카카오톡에서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2. 둔전교회를 검색합니다.



3.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버튼(채널추가하기)를 누릅니다.



4. 채널을 통해 둔전야청목장과 교회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조항철·송경옥 김명숙 김정예 김종순 김효영·정순진 김 훈
박희균·이혜영 방정원·박지희 오윤희 우순희 유인숙 이 희
임완민·곽삼화 정영숙 정재현 정진영 천광우 하연주 한규봉 무명2

◆ 감사헌금

김상우·정경혜 남영옥 명민주 박상민 박재락 서인순 우순희 유병희
이복음 이상현 이순자 정귀자 정영숙 천광우 추사순 표금숙 황미선
무명

◆ 선교헌금

◆ 건축헌금

김학관·김영희 박경준 박상민 박심원 박현준 백승환·최미연
임완민·곽삼화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538,000	550,000	3,759,000		10,80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